

## 격 려 사

오늘 민족의 아픔이 그대로 서려있고 분단의 상징이 되어버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도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호국도량 무량수전 기공식에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현집 대장님, 1보병사단장 이종화 소장님, JSA 대대장 권영환 중령님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력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커다란 원력으로 불사를 발원하고 행사를 주최한 군종교구장 정우스님과 군승법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이곳 판문점과 가까운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 등, 남북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의 국면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은 공동경비구역(JSA) 신축법당 불사는 국민 모두에게 생명이 넘치는 봄소식으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신축법당 무량수전은 고려시대 건축양식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의 희생자를 봉안하여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호국도량이기에, 한국불교의 전통을 담은 상징적 법당으로 원만히 불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종단과 사부대중 모두가 힘을 모아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인 판문점에서, 24시간 쉼없는 긴장속에서 북한군과 대면하여 나라를 수호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원력과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건승과 무운장구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경비구역(JSA) 신축법당 불사를 주관하신 군종교구장 정우스님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 그리고 군불교 지도자와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참하신 모두의 공덕으로 우리 민족에게 공존과 상생의 향기가 두루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3월 24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